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 청취
및 발전방향 찾아서
의견 개진을 통한 방법 모색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일 오후 1시 신관2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



▲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의 회의 장면.

면서 논의를 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하여 이백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합리적 대안

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향을 찾아서 의견 개진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2시 최고고도지구 완화 지역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수동 청수탕 뒷편 가르멜수녀원 인근지역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로 하였다.

한편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 내·외간 형평성 문제 등 최고고도지구 내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특위 5일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일 오후1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를 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하여 이백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향을 찾아서 의견개진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최고고도지구 완화 지역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수동 청수탕 뒷편 가르멜수녀원 인근지역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로 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내·외간 형평성 문제 등 최고고도지구 내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 이백균 특별위원장과 이정식·이용균 의원이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완화특별위 간담회 현장에서 합리적 대안 제시 및 주민의견 청취 강조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가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5일 오후 1시 신관2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최고고도지구완화특별위는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백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

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향을 찾아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뒤 10일 오후 2시 최고고도지구 완화 지역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수동 청수탕 뒷편 까르멜수녀원 인근지역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로 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 내·외간 형평성 문제 등 최고고도지구 내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일 오후1시 신관 2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를 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하여 이백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

하고, 현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향을 찾아서 의견개진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한 뒤, 10일 오후2시 최고고도지구 완화 지역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수동 청수탕 뒷편 까르멜수녀원 인근지역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에 앞서 강북구의회는 지난달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 내·외간 형평성 문제 등 최고고도지구 내 재산권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하고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 이정식, 위원 이용균)에서는 제183회 임시회 회기 중 지난 5일 오후 신관2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논의를 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백균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전방향을 찾아서 의견개진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한 뒤, 10일 오후 최고고도지구 완화 지역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마치고 인수동 청수탕 뒷편 까르



멜수녀원 인근지역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해 주민들의 소리를 듣기로 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강북구의회는 지난 달 1일 제182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을 위한 공익 목적의 도시계

획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구 내 혹은 지구내·외간 형평성 문제 등 최고고도지구 내 재산권 행사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하고자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유영일 기자